

연예뉴스 스테이션



‘케이힙합 파이팅!’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클럽 앤서에서 열린 ‘힙합스타’ 제작발표회에서 힙합 가수들이 공연의 성공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시스

‘힙합스타’ 콘서트, 에픽하이 등 유명래퍼 참여

힙합 가수들이 10주간 텔레이로 공연을 펼치는 ‘힙합스타’ 콘서트가 27일부터 열린다. 에픽하이, 블락비 지코, 양동근, 버벌진트, 산이, 매프클라운 등 유명 래퍼들이 대거 참여한다. 에픽하이와 스네키천의 공연을 시작으로 11월5일까지 매주 목요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클럽 앤서에서 진행된다. ‘힙합스타’은 록 페스티벌의 서막이 됐던 ‘우드스타’에서 이름을 따왔다. 레게 래퍼 스킵은 “뮤지션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좋은 공연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 1960년대 걸작 8편 소개

부산국제영화제가 20회를 맞아 한국영화의 최초 황금기라 할 수 있는 1960년대 숨은 걸작 8편을 소개한다. 한국의 분단 상황을 그린 박상호 감독의 ‘비무장지대’(1965)를 비롯해 이상언 감독의 ‘현금은 내 것이다’(1965), 이용민 감독의 ‘살인마’(1965), 이성구 감독의 ‘장군의 수염’(1968), 이형표 감독의 ‘명동에 밤이 오면’(1964), 최하원 감독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1968), 조궁하 감독의 ‘육체의 고백’(1964)과 이봉래 감독의 ‘육체의 문’(1965)이 50여년 만에 다시 관객들을 찾는다.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1일 개막해 10일 폐막된다.

이민정, 출산 후 첫 공식석상…연기 복귀 검토도



연기자 이민정(사진)이 3월 출산 후 처음 공식석상에 나선다. 이민정은 7일 한 패션 브랜드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다. 약 15분가량 무대에 올라 사진촬영을 진행하며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출산 이후 육아에 매진해왔던 이민정은 연기자로의 복귀도 예고했다. 소속사 측은 5일 “출산 후 여러 작품 대본을 받았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복귀 작품과 시기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영화 ‘마돈나’ 권소현, 블러썬 엔터에 등지



영화 ‘마돈나’를 통해 충무로의 기대주로 떠오른 연기자 권소현(사진)이 블러썬 엔터테인먼트에 등지를 틀었다. 권소현은 영화에서 마돈나라는 별명을 가진 미혼모 마나 역을 맡아 소외된 계층의 내면을 실감나게 그려내며 호평 받았다. 2007년 뮤지컬 ‘뷰티풀 게임’을 시작으로 ‘헤어스프레이’, ‘그리스’, ‘노래하는 사일룩’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해 주목 받은 실력파다. 블러썬 엔터테인먼트에는 차태현, 송중기, 박보검 등이 소속돼 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KBS ‘넥스트 휴먼’ 진행

‘개미’, ‘뇌’, ‘제3인류’의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KBS 1TV 글로벌 대기획 ‘넥스트 휴먼’의 프리젠테이션(다큐멘터리 진행자)로 나선다. ‘넥스트 휴먼’은 2년간 공들인 기획으로 멕시코, 노르웨이 등 세계 20여 개국을 돌며 인류의 과거와 미래를 담아낸 다큐멘터리다. 제작진은 5일 “천재적 상상력을 지닌 작가가 인류의 몸과 진화과정을 재미있게 들여다볼 것이다”고 밝혔다. 총 4부작으로 기획됐으며 9월3일 1편인 ‘돌연변이의 탄생’을 시작으로 2주에 걸쳐 방송된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책 랭킹



7월 22일~7월 28일, 자료:교보문고

순위	제목	작가
1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2	오베라는 남자	프레드릭 베크만
3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채사장
4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52	백종원
5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병률
6	파수꾼	하퍼 리
7	비밀의 정원	조혜나 베스포드
8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9	허즈번드 시크릿	리안 모리아티
10	지적 대화를…지식: 현실이며 편	채사장

송승헌, ‘제2의 왕조현’ 유역비와 열애

국경을 넘는 톱스타 커플이 탄생했다. 한류스타 송승헌(39)과 중국 스타 유역비(리우이페이·28)가 핑크빛 열애 중이다. 송승헌의 소속사 더좋은 이엔티 측은 5일 “영화 ‘제3의 사랑’을 찍으며 가까워졌고 촬영 후 자주 연락을 하며 좋은 감정을 키워왔다. 연애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좋은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기를 바란다. 결혼을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열애는 중국 연예 매체 전민성

탐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전민성탐은 이날 유역비와 송승헌이 같은 차를 타고 상해에 있는 유역비의 별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한 사진과 함께 “이튿날까지 두 사람이 함께 한 집에 머물렀다”고 보도했다. 송승헌과 유역비는 중국 베스트셀러 ‘제3종의 애정’을 원작으로 한 영화 ‘제3의 사랑’(감독 이재찬)의 주인공으로 인연을 맺은 후 연인으로 발전했다.

중국 스타 유역비는 2002년 중국 드라마

영화 ‘제3의 사랑’ 찍으며 서로 호감
中 언론은 ‘유역비 별장 테이트’ 보도

‘금분세기’로 데뷔했으며, 이후 영화 ‘사대명포’ 시리즈와 드라마 ‘신조협려’ 등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영화 ‘천녀유혼’의 리메이크판에 출연하며 ‘제2의 왕조현’으로 떠올랐다. 현재 조미, 판방빙, 탕웨이와 함께 중국의 4대 미녀 배우로 꼽히고 있다.

13일 영화 ‘미쓰 와이프’의 개봉을 앞둔 송승헌은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배용준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최근 들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다”



송승헌(왼쪽)과 유역비

고 밝혀 두 사람의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드라마 ‘어셈블리’(왼쪽사진)와 ‘미세스캅’이 부정부패가 가득한 정치판과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작품 속에 녹여내며 정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 | KBS·SBS

분노와 희망 사이…드라마, 현실을 말하다

안방극장 새 트렌드

‘미세스캅’ ‘어셈블리’ 부패 권력 소재
‘에이스’는 사회와 맞서는 변호사 그려
“판타지보다 삶과 직결된 소재가 공감”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한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욱 극적이다.

재벌 총수의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 갑을 관계 등 뉴스의 단골소재가 되어 버린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들이 드라마 속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모두 현실을 녹여내며 시청자

의 공분을 사기도 하지만, 드라마 특유의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미해 또 한편으로는 위안과 희망을 얘기하고 있다.

4일 종영한 SBS 특집드라마 ‘에이스’와 케이블채널 tvN ‘신분을 숨겨라’는 사회악에 맞서는 변호사와 경찰의 활약을 그리며 패감과 여운을 남겼다. ‘에이스’는 과거 자신이 가해자로 몰아 자살한 피해자의 딸을 조카로 키우면서 사회악을 응징하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았다. 군에서 벌어진 의문사와 굶주다단계 사기 행각 등 현실에서 자주 접하게 사건을 중심으로 그려며 정의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다. ‘신분을 숨겨라’는 지난해부터 온 나라를 떠

들썩하게 만든 1조원 규모의 국내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중심 소재로 다루며 이에 연루된 정치세력을 심판하는 특수수사대의 활약상을 통쾌한 액션에 버무렸다.

SBS 월화드라마 ‘미세스캅’은 ‘불편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여형사를 전면에 내세워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워킹맘의 애환, 권력과의 유착관계로 정상적인 수사가 힘든 추악한 경찰 조직, 연쇄살인마와의 전쟁 등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재현하고 있다.

KBS 2TV 수목드라마 ‘어셈블리’는 배신이 난무하는 정치의 부끄러운 단면 속에서도

희망을 내포하고 있다. 드라마는 국민이 최우선이어야 할 정치인들이 개인의 성공을 위해 특정 계파의 이익만을 쫓고, 국회에서 싸움을 일삼는 의원들의 민낯을 과감하게 드러내며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처럼 사회고발성 메시지가 짙은 드라마들의 잇따른 등장에 ‘어셈블리’ 제작진은 “최근 시청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 소재보다 내 삶과 직결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인다”면서 “아픈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속에서 악을 처단하려는 영웅적인 존재로부터 희망을 찾고 위안을 얻는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베테랑’ 류승완 감독이 장운주를 고집한 이유

“무한도전에서 보여준 유머감각 반해”
톱배우 아닌 장운주 파격 캐스팅

통쾌한 액션의 향연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베테랑’이 또 한 사람의 ‘연기자’를 탄생시켰다. 그동안 음반과 라디오 DJ 등으로 재능을 드러내왔지만 영화는 물론 연기 자체가 처음이지만 데뷔작에서부터 비중이 상당한 배역을 마힘없이 소화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원한 발차기로 영화의 통쾌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는 호평도 이어진다.

세계 각국의 런웨이를 화려하게 장식해온 톱모델 장운주가 주인공이다. 5일 개봉한 ‘베테랑’(제작 외유내강)을 통해 연기에 본격 도전했다. 사실 개봉 전 장운주의 캐스팅은 ‘의

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영화에서 그가 맡은 여형사 ‘미스봉’을 육심녀 여배우들이 여럿이 엮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지도 높은 몇몇 여배우는 연출자 류승완 감독을 포함해 제작진과 만나 배역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흥행을 보장해온 황정민 등 스타가 참여하는 데다 남자들의 세계로 익숙한 경찰 광역 수사대의 홍일점 형사라는 설정이 여배우들의 호기심을 이끌었다.

그런데도 연기 경험이 전무한 장운주가 ‘베테랑’에 ‘파격’ 캐스팅된 결정적 배경은 다른 데 있었다.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보인 활약상이다.

장운주는 2010년 ‘무한도전-달력 특집’에 출연해 ‘발연기’를 주제로 다양한 연기를 소화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이후 해당 특집이

자주 재방송되면서 최근까지도 그의 활약상이 꾸준히 알려지고 있다.

이 모습을 잊지 못한 류승완 감독은 장운주 캐스팅에 적극 나섰다. “기성 여배우도 고려했지만 기존의 이미지가 좀처럼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는 류 감독은 “장운주가 ‘무한도전’에서 과시한 유머감각을 보면 얼마나 명석한 두뇌를 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예술대학에서 연출을 전공한 장운주의 이력도 영화 출연에 힘이 됐다. 모델로 활동하며 다진 몸매 역시 몸 쓰임이 많은 액션 연기에 안성맞춤이었다는 평가다. ‘베테랑’의 한 제작 관계자는 “정두홍 무술감독에게 매번 다른 액션 동작을 주문할 정도로 표현력이 남달랐다”고 밝혔다.

실제로 장운주는 영화에서 제 몫을 해낸다.



건장한 남자와 맞붙는 맨손 액션도 거침없이 펼친다. 트레이닝복에 운동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영화 속 자신의 모습이 “실제 나와 같다”고 장운주는 말한다. 그는 “영화에 출연한다고 해서 어떤 스타일을 추가한다면 오히려 모델로서만 보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대한 화장기를 벗고 화려한 모습도 버려 평소 내 모습대로 나셨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li1024@donga.com

원빈 스크린 복귀 연기…5년째 공백 장기화 우려

톱스타 원빈(사진)의 연기 복귀 시점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5일 영화계에 따르면 원빈은 한동안 출연을 고심해왔던 영화 ‘신과 함께’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정된 시나리오를 기다리고 있다”며 관심을 드러냈지만 이후 여러 진행 상황과 여건이 맞지 않아 결국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이날 “올해 들어 원빈

은 영화 참여에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었고 판타지 장르물인 ‘신과 함께’ 역시 그 중 하나로 신중하게 생각해왔다. 하지만 향후 자신에게 좀 더 적합한 기회를 모색하지는 쪽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신과 함께’는 ‘국가대표’와 ‘미스터 고’를 연출한 김용화 감독이 준비하는 2부작 판타지 시리즈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현재 톱스타 하정우와 김우민 등 흥행 배우들



이 출연을 조율하고 있다. 내년 제작되는 한국영화 가운데 대작으로 꼽힌다.

이처럼 여전히 주요 대작들로부터 빠짐없이 출연 제의를 받을 만큼 높은 지명도를 자랑하는 원빈이지만 연기 공백은 벌써 5년째에 접어들었다. 2010년 영화 ‘아저씨’를 끝으로 간혹 CF에만 모습을 드러낼 뿐 본격적인 연기 활동은 중단하다시피한 상태다.

최근 동료 여배우 이나영과 결혼, 2세 임신

소식을 연달아 전한 원빈은 이런 개인사로 인해 연기 공백이 더욱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받고 있다. ‘신비주의’에 가까운 모습으로 자신에 관한 크고 작은 일들이 왜곡돼 알려지는 일도 부쩍 늘었다. 최근 영동한 인물의 사진이 그의 부친의 것으로 오해돼 잘못 유포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소속사 이드나인의 한 관계자는 “몇몇 작품을 후보에 놓고 출연을 고민하고 있다”며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작품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li1024@donga.com